

지역 소식통

고창군, 희망2024나눔 캠페인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희망2024나눔캠페인'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4000만원 상당의 승합차를 전달 받게됐다.

고창군은 당초 3억원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6억2100만원을 모금하며 200% 초과 달성하며 지난해 최우수기관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고급리, 고불가, 고환을 등 어려운 시기에도 고창군의 기업, 기관, 군민들이 함께 이룬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고창군은 2년 연속 목표액을 200% 초과달성함으로써 고창군 지역 전반에 기부문화가 정착되었음을 보여줬다"며 "나눔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해준 고창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불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고창군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부안군은 26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5급 이상 간부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지침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지난 2021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교육은 임현식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위촉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으로 젠더폭력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익현 군수는 "지속적인 사례 중심의 폭력 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건전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명사십리 연결도로 개선”

## 심덕섭 고창군수 “서해안 최고의 해안도로 만들 것” 군도1호선 확포장 공사·죽곡마을 노후주택 정비

심덕섭 고창군수가 명사십리를 찾아 향후 노을대교, 고창종합테마파크와 연계된 '서해안 최고의 해안도로' 구상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행정 첫 방문지로 상하면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현장을 찾았다. 상하면 군도 1호선은 전국 최고의



심덕섭 고창군수는 현장행정 첫 방문지로 상하면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현장을 찾 노을대교, 고창종합테마파크와 연계된 '서해안 최고의 해안도로' 구상을 밝혔다.

직선형 해변인 고창 명사십리를 감상할 수 있는 도로이다.

심 군수는 이 도로를 노을대교, 고창 종합테마파크와 연계해 서해안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 도로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해안사구 보존을 위한 해수부 국민안심해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식 방지를 위한 약 2km의 모래 보충(양빈)과 염생식물 식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봄계 타고르는 노을과 쪽 뺨은 모래사장, 해송 숲이 어우러지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심 군수는 심원면 죽곡마을 노후주택 정비 현장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다. 특히 현장에 참석한 주민 20여명은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고창군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농촌 마을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만들어 행복고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정읍천 미로분수 6월 본격 운영

### 음악분수, 체험형 공연 등 여름철 물놀이 시설로도 활용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하는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은 2022년 10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해 2023년 4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했다. 이후 예산확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6월 미로분수 운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미로분수 조성사업에는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12m\*90m 규모의 미로형 바다분수를 정읍천 파크포플장 옆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음악분수와 체험형 공연을 가동하고 여름철에는 바다분수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 물빛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함께 준비하고 있어 시내 관광의 핫플레이스

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설치구간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혼합형 변경에 따라 하천 둔치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분수시설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설치 방식으로 진행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에도 빈틈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읍천에는 정읍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문화역사의 거리'를 2025년까지 조성하고, 벽천분수, 사진 찍고 싶은 거리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정읍천을 정읍의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미로분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관광 핫플레이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정읍천을 공연·체험·휴식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시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숙박객 대상 이벤트 행사

### 경품추첨, 숙박료 할인 등

고창군이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방문객을 위해 연말까지 경품추첨과 숙박료 할인 이벤트를 연다.

경품추첨 이벤트는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숙박객 중 관외주소자를 대상으로, 1객실당 1회씩 뽑기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다. 경품 참여자에게는 평일 무료숙박권(12명) 및 기념품(1000명)이 선물로 제공된다. 숙박료 할인 이벤트는 유스호스텔

입실 당일에 방문한 고창군의 유료관광지 중 2개소 이상의 입장권 및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숙박료의 10%를 할인한다. 대상 관광지는 운곡습지, 고창읍성, 상하농원, 고인돌박물관 등 총 9개소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이용객들을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뿌리고창인(뿌리고창인중 소지자)과 자치단체 상생협력 MOU가 체결된 영광군·장성군 다자녀가족에게 숙박료 50%를 감면해준다. 람사르운곡습지 유스호스텔

은 2020년에 개관하여 총 6개동 12객실로 동시에 70여명 수용가능하다.

람사르습지이자 국가생태관광지인 운곡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숙박시설로 개관 이후 많은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오미숙 고창군 관광산업과장은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통해 고창군 주요 관광지를 연계 홍보하면서,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보건소, 봄 나들이철 대비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정읍시보건소는 봄 나들이철을 대비해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오는 3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컨설팅 대상은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나들이 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42개소다. 평가표의 각 점검항목에 대해 관련 서류와 기록 확인, 현장평가(육안, 측정장비 활용) 등에 의해 컨설팅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확인(영업신고증, 건강진단 등 비치 여부) △조리과정별 위생관리상태 확인(식재료 입고, 해동, 조리 등) △조리단계별 오염 가능성 확인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특히 종사자의 위생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칼, 도마, 냉장고 손잡이 등의 '세균오염도(ATP) 측정'을 통해 종사자가 실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흡한 사항에 대

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결과 60점 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재방문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떡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맞춤형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부안군 방문

부안군은 26일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비롯해 영사 등 4명이 부안군을 방문해 권익현 군수와 면담을 통해 국제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한 키르기스스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와 부안군 권익현 군수는 상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앞으로 두터운 우정을 함께 이어가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 통으로 알려진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부총리를 지내며 교육, 과학,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키르기스

스탄에 2만 여명의 고려인이 거주 중이고 양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만큼 부안군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모색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인구는 610만 명으로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독립했으며 1997년 우리나라와 문화투자협정을 체결했다.

부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촌인력 고용 방안 등 협의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계절 근로자 도입은 양국 지자체간 MOU체결 후 구체적인 시기와 인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를 거쳐 추진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